작가탐구 미국·흑인·여성문학 토니 모리슨

계급-인종-성 3중 피억압자의 대변인

토니 모리슨은 '93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에 '의외'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외'라는 반응은 적어도 모리슨에게 있어서는 '척'하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 한림원은 모리슨을 선정한 이유로 "인종이라는 차꼬로부터 해방된 언어에 대한 천착"을 들었다. '의외' 라는 모리슨의 반응은 바로 이 선정이유와 지시의 문학 사이에 가로 놓인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서 나온 반응이었을 것이다.

서재에 선 토니 모리슨. 한림원의 선정 이유는 한림원과 모리슨 사이의 '문학적 거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구성-감정의 배제-언어 기교 탁월
충격적 사건을 서정적 분위기로 묘사

문학의 정치성 뚜렷

모리슨은 문학이 '정치적'입음 분명히 못박고 있다. 심대소녀시절 모리슨이 탐독했던 서구문학의 정전들은 그녀에게 두가지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그 하나는 그 '후륭한 문학작품'들이 오하이오주 토레인시에 살고 있는 흑인소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둘은 이 작품들이 '작가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경험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리슨은 '자신이 성장해온 문화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자 했다. '소설이 그 작가가 속한 계급의 이익을 위해 기능해왔음'을 전제하는 모리슨은 흑인의 소설들 역시 흑인의 계급적 전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모리슨의 문학은 흑인들에게 '현재의 문제와 갈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나아갈바를 제시해주는' 문화적 실천이다.

미국흑인의 현실을 조건짓는 요인들로는 크게 보아 흑백 인종차별에서 오는 인종적 갈등, 그리고 대부분의 흑인들이 파라미드의 하부를 점유하는 피지배계급이라는 데서 발생하는 계급적 갈등을 꼽을 수 있다. 토니 모리슨으로 대표되는 미국흑인여성문학 이전의 미국흑인문학은 리차드 라이트이건, 랠프 엘리슨이건, 제임스 볼드윈이건 계급과 인종이라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패러다임으로 흑인의 현실을 형상화해 왔다. 모리슨은 이들의 문학에서도 흑인여성인 모리슨 자신의 경험을 발견하지 못했다. 흑인남성작가들의 패러다임에는 미국흑인여성의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급, 인종, 성에 의한 삼중의 억압에 왜곡 되어온 흑인여성들의 삶은 60년대 흑인민권운동기를 지나 흑인문학이 미국문화의 중심부를 진입하던 70년대에 이르러 랜덤하우스라는 막강한 조직의 편집인이자 소설가인 토니 모리슨에게서 비로소 그 대변자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비정상적 인물 설정

모리슨의 소설들은 세련되고 안락하며 긍정적인 부르조아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살인, 강간, 방화, 린치 등이 그녀의 소설들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뒤틀리고 왜곡된 정서를 드러내며 철창에 갇힌 동물들처럼 할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성하는 숱한 질곡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주먹을 내지르며 고함친다. 그리고는 미치거나 죽어간다.

처녀작인 '가장 푸른 눈'(1970)에서 가난하고 못생기고 검기 때문에 모든 흑인들로부터 사랑을 거부당한 흑인소녀 피콜라는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하고 아기를 사산한 후 미쳐서 거리를 헤인다. 광기에 휩싸인 피콜라를 위로해주는 것은 피콜라 자신이 모든이로부터의 사랑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푸른 눈'을 갖게되었다는 망상뿐이다. '술라'(1973) 역시 기괴한 인물들과 격렬한 죽음들로 가득찬 소설이다. 술라의 할머니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나리를 달리는 열차의 바퀴 밑에 밀어넣으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다. 술라 자신은 같이 놀던 아이가 물에 빠져죽어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비정함을 보여준다. '솔로몬의 노래'(1978)의 주인공 밀크맨은 소유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네 살이 넘도록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황량한 정서의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한다. '검은 아이'(1981)에서는 간통한 아내를 살해하고 도망중인 씨과 백인의 도움으로 소르본느에 유학한 모렐 재던 사이의 관계가 백인의 식민지에서 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흑인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개된다. '빌러비드'(1988)의 씨드는 노예신분을 물려주기 싫어 두살배기 딸을 죽여버린다. 죽은 딸은 유령이 되어 살아있는 어머니를 괴롭힌다. '쎄즈'(1992) 역시 살인으로 시작한다. 50대의 화장품 외판원인 조는 열여덟의 정부를 총으로 살해하며, 부면히 미용사인 아내 바이올렛은 그 주검의 얼굴에 다섯 줄을 들이댄다.

절반은 잘못된 심사

그런데, 놀랍게도, 모리슨의 소설들은 시정적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증오, 살인, 강간 등으로 얼룩진 이야기들이 그리 격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리슨의 화술, 즉 서사를 조직하는 교묘함에 의해 그것이 걸러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리슨은 자신의 목소리를 억제한다. 작가의 감정이 가능한 한 배제된 서사에서 사건들은 쏟래쳐 내용 통해 제시되는가 하면, 사건 당사자 혹은 관찰자의 독백에 의해 우회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사건의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하는 서사기법에서부터 은유로 가득한 짧은 호흡의 단문으로 구성된 주어체의 문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리슨은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이야기 형식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 왔다.

백인 문학비평가들이 굳이 모리슨을 윌리엄 포크너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격렬한 정서와 언어적 기교의 결합에서 두 작가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인종, 계급, 성에의해 삼중으로 소외된 미국흑인여성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천착하는 토니 모리슨을 수상자로 선정한 스웨덴 한림원의 수상이유는 절반만 옳은 것 같다.

이 삼 출
〈본교 강사·영문학〉

▒금주의 시

오색에 가다

나 호 열
〈시인, 본교 사무처 직원〉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니다 싶을 때 그곳이 오색이다.
눈감고, 귀막고 십리길 그 깊은 곳에 살아 온 날들
흙치고 버리고 온 내가 成佛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얼음 낀 하늘 오르는 인적 이미 끊긴 길이
급하게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다 골 깊은 사람마다 그림자 눌러 놓고
단청빛 바람과 울울한 숲이 머금어 놓은 나뭇잎은 나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웃고 있으니
한 번 가서는 오지 않는 것들이 서서 죽은 나무들과 더불어 집밖에
마음을 세웠으니 가끔은 눈물로 풍경을 씻는다. 미쳐서 훨훨 옷 벗어던진
빛깔 맞이 있는 빛깔.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 하룻밤을 쉬었다.
막다른 곳에서 밤새 우리에 갇힌 죄들도 풀어 주었다.
세벽이 되면 쩔걱거리는 열쇠를 차고 세속의 길은 나를 데리러
서둘러 오리라

1953년 충남 서천에서 남.
시와 시학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옴.
시집으로 '담쟁이 덩굴은 무엇을 향하는가'
'방각은 하얗다' '칼과 집'등

□경희문화

경희극회 '애주읍…'

수원캠퍼스 연극동아리 '경희극예술연구회'는 25,27,29일 3시에 공대 시청각실에서 제29회 정기공연으로 '애주읍 사람들'을 무대에 올린다. '89 아사아 연극제 출품작인 최인석의 '시간의 문법'을 경희극회에서 직접 개작한 이 작품은 애주읍이란 때묻지 않은 시골 마을이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노동과 성의 상품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다루고 있다. '애주읍 사람들'에선 애주읍만의 얘기가 아닌 나아가 세계 전체와 연관된, 자본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의 대안을 관객에게 요구한다.

연출을 맡은 김남수(토목·2)군은 "경희인들은 문학·공연에 대한 관심이 타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며 "생각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다.

카오스 정기공연

전자공학과 음악동아리 '카오스'(CHAOS)가 오는 26일 4시30분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제4회 공연을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서 카오스는 메탈뿐만 아니라, 락과 발라드까지 15곡을 선보이며, 학내 그룹사운드 '탈무드'가 우정출연 한다. 관람희망자는 당일 크라운관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연 극

무천 '우리가 서로를…' 최초 소개 침묵극

극단 무천이 '숨은물'이후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작품으로 두번째 공연을 한다.

독일의 실험연극의 기수 패터 한트케의 최근 희곡을 김아라가 재구성, 연출한 이 작품은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침묵극이며, 관객 제한 공연(50명)으로 관객과 배우가 함께 만드는 연극, 전혀 새로운 '체감의 연극방식'에 대한 실험이다.

이 작품은 햇빛 밝은 오후, 공원에서 16명의 출연진이 1시간40분동안 말없이 공원을 지나가는 2천여가지의 인물군상들을 변신 연기함으로 사람과 사람이 지나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비껴가는 일초의 시간, 그것이 내재하는 공간의 거리감, 즉 일상의 내재율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11월5일부터 11일까지 7시30분, 11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4시30분, 7시30분(화요일 공연 없음)연극 실험실 혜화동 1번지(563-5739).

시사회/책 읽어 주는 여자

색조감 돋보이는 신비주의 화면

'93년 책의 해'와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이며 즐거운 일인가를 되찾아 주는 프랑스 영화 '책 읽어 주는 여자(La Lectrice)'가 선보일 예정이다.

주인공 콩스땅스는 책읽기를 좋아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어느날 밤 침대에서 연인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책의 이름은 '책 읽어 주는 여자'. 독서와 공상을 좋아하는 그녀는 차츰 소설에 빠져 들면서 어느덧 책의 주인공 '마리'가 되는데….

마리는 친구의 권유로 '젊은 여성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란 광고를 내게된다.

이윽고 다섯명의 의뢰인들을 받게 되고 반신불구의 소년 에릭에게는 보들레르의 시를 읽어 주고, 자칭 1백살이라는 사회주의자인 장군 미망인에게는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을 욕구불만인 독신 사장에게는 마그릿트 뒤라스의

'연인'을 6살의 소년에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어주며 그들의 친구나 연인이 되기도 한다.

공원의 벤치에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며, 비오는 날에는 우비를 벗어 쏟아지는 비를 맞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마리에 반한 콩스땅스는 자신도 광고를 내고 '책 읽어주는 여자'가 되고자 한다.

원작은 프랑스의 신소설(Nouveau Romans)작가인 '혜이몽 장'의 소설이며 그의 작품 '베라B의 환상과 그 외의 이야기'가 삽입되듯이 섞여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소설에 비해 영화는 음악, 색채가 뚜렷이 영상화되어 작품성있게 승화되었다.

"드디어 내가 찍고 싶은 것만을 즐기면서 찍는다"

미셸 드빌감독이 이렇게 말하며 행복해 할 정도였다. 그는 외도적으로 사실주의에서 벗어진 경향이 있으며 신비로움이 가득한 화면을 엮었다.

영화의 삽입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로 큰 보폭으로 회색의 거리를 활보하는 그녀의 푸른 이미지는 청량감을 준다.

등장인물 개개인은 이 영화에서 강조되는 작자의 색채가 가지고 있다.

마리는 푸른 눈에 푸른 쉐터와 모자, 꼬마와 젊은 엄마는 성장기 같이 유쾌한 흑색과 백색, 장군부인은 열정적인 검붉은색, 에릭은 유단의 정원을 상징한 녹색이다.

모파상의 단편과 보들레르의 시들이 마리에 의해 읽힐 때면 어느 외국생존기의 말처럼 '단은 작품을 읽는 1백사람은 각각의 목소리와 느낌을 갖고 있어 전혀 다른 작품이 된다'란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약적존이 가능하며 상상의 불가능이 없다는 프랑스 특유의 자유의지와 색조감이 있다.

'책 읽어 주는 여자'는 회색도시의 단조로운 일상과 터부(책 읽는 것은 왠지 딱딱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를 깨뜨려 현대인의 고독의 색채를 가볍고 부드럽게 다루고 있다.

〈이유경 記者〉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인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컴퓨터도 이젠 인간의 건강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선 반도체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의 최첨단 그린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컴퓨터 본체는 물론 모니터와 HDD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그린화를 실현해가는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컴퓨터 한 대를 만들더라도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린 속도 확장성 그래픽

- 초절전 및 유해전자파 차단
- 저소음환경 제공
- 재활용가능 포장박스 사용
- VESA로컬버스 2Slot 탑재
- 128KB의 외부캐쉬메모리 장착
- 인텔리전트 BIOS채택
- 오버드라이브소켓 장착
- 7개의 확장슬롯 및 5개의 Bay제공
- SCSI포트 내장
- 3.5, 5.25 FDD 2개 장착
- 170-250MB의 대용량 HDD내장
- 울트라 VGA 기본 1MB내장
- 윈도우즈 액셀러레이터 채택
-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윈도우 탑재

삼성 그린 컴퓨터

삼성그린컴퓨터 9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고동연 삼성 그린컴퓨터에 보내주신 고마워하는 믿기분 생활에 보답코자 아래한 9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다음 분 입업에 구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 기 간 : 10월 1일~10월 31일까지
• 구입처 : 전국 삼성컴퓨터 전문점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C&C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소비자상담실
• 수신자부담전화 080-022-3000
• 직통 (02) 541-3000

■ 국내영업본부 C & C 판매사업부
서울시 중구구 순화동 203번지(기업은행 8층)
■ 교육센터(교육 및 A/S)
• 영업(02) 565-3388 • 교육(02) 567-3388
• 관리(02) 565-3388

■ 지방영업소
• 부산(051) 404-6005 • 부천(032) 731-6917 • 서울(02) 441-5600
• 대구(053) 742-1215 • 대전(042) 254-2643 • 대구(053) 742-8535~7
• 울산(052) 263-5281 • 광주(062) 511-7341 • 서울(02) 547-1254~3
• 창원(0551) 62-1831~3 • 경남(0551) 62-0560
• 전주(0281) 58-0160 • 수원(0331) 252-7150

■ 삼성전자지점
• 서울(02) 441-5600
• 대구(053) 742-8535~7
• 서울(02) 547-1254~3